신라·고려의 통일요인과 한반도 통일
: 대외환경을 중심으로

정성임(육군사관학교)*·김세라(이화여자대학교)**

논문 요약

이 논문은 삼국시대와 후삼국시대의 대외환경과 통일 간 연계성을 비교 고찰하고 이를 통해 현재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외환경 측면에서 신라와 고려 통일의 주요 요인은 친선정책을 일관되게 펼치며 유리한 통일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신라는 유일한 패권국가인 당나라와의 친당정책에 주력하여 군사연합을 이끌어내며 한반도에서 통일을 이루었다면, 고려는 중원 국가들과 거란이 상호 견제하는 다극체제 하에서 후삼국 국가들과의 외교에 보다 주력하게 되며 통일을 완성한 것이다. 최근 동북아는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가 다극질서로 변화하며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 경제협력 증진을 통해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관계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선 신뢰'의 정책으로 적극적인 대화와 교류에 나서야 한다.

주제어 : 대외환경, 단극체제, 다극체제, 친선정책, 이중정책

* 제1저자, ** 교신저자

Ⅰ. 문제제기

최근 남북관계는 일부의 대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결과 긴장상태에 놓여있다. 통일이 언제 찾아올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통일을 위한 논의와 준비는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이다'라는 말처럼 통일의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통일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분단체제에서 평화체제, 그리고 통일의 과정은 동북아 질서 및 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 국가들의 지지 및 협조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동북아는 질서 및 구조의 변화가 목도되고 있다. '신형대국론'을 내세우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정치적 갈등에 머물던 중국과 일본 간 영토분쟁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파워 게임의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재균형정책(Re-Balancing) 등 아시아 중시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시퀘스터(Sequester)로 인해 재정압박을 받으며 정책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이 강조되며 미일동맹이 재강화되고 있다. 즉, 동북아는 힘의 균형이 흔들리며 새로운 질서가 조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환경에 대한 적응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물음에 대한 단초를 얻기 위해 기존 연구들은 다른 분단국의 사례들(독일, 예멘, 베트남)에 주목하였다. 국제질서의 변화로 인해 통일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거나[1] 통일방식이 달라지는[2] 등 통일과정에서 대외환경은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

1) 독일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 소련에 막대한 지원을 해주는 통일외교를 벌였으며, 예멘의 경우 아랍연맹의 통일예멘에 대한 지지와 남예멘에 대한 공산권의 원조가 급감하는 변화로 인해 통일환경이 조성되었다. 김용옥, "예멘과 독일의 통일사례 비교와 시사점: 통합 합의과정 및 통일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1호, 2006, p. 288.

www.kci.go.kr

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시사점으로 통일외교의 필요성이 요구된 것이다.

그런데 분단국가의 통일사례는 한반도의 역사에도 있다. 현재 남북한처럼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단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삼국시대, 후삼국시대에 신라와 고려는 각각 한반도의 통일을 이룬 것이다. 패권국가인 당나라가 존재했던 단극체제의 삼국시대와 5대 10국 왕조들이 난립하면서 다극체제 모습을 보인 후삼국시대의 대비되는 환경은 현재 동북아 정세의 변화와 관련한 시사점을 보여줄 수 있다. 단극체제와 다극체제에서 통일환경 조성에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대외정책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라와 고려의 통일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통일과정 자체에 주목하여 왔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대외환경을 다룬 논문도 일부 있지만,[3] 이들 연구는 대외환경과 통일의 관계, 즉 통일요인으로 대외환경을 연계시켜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당시 신라와 고려는 어떠한 대외환경에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는가? 당시 국제정세는 어떠했으며 대외환경과 통일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 대외환경 측면에서 통일성공의 요인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 논문은 삼국시대와 후삼국시대의 대외환경과 통일 사이의 연계성을 비교 고찰하고 이를 통해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의 대외정책의 방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신라와 고려로 나누어 통일의 과정, 대외환경 변수를 각각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두 사례에서 통일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한 후 현재 한반도의 환경에서 지향해야 하는 정책에 대한

2) 베트남은 냉전질서가 확대되던 시기에 '전쟁'이라는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어 냈으며, 독일은 탈냉전이 진행되던 시기에 서독이 동독을 흡수함으로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달성하였다. 이현표, "한반도의 통일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pp. 38~39.

3) 신라의 통일시기 대외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연민수, "7世紀 東아시아 정세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제24호, 2004; 김은숙,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수의 등장 이후 백제 멸망까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26호, 2007; 이병렬·조기호, "7세기 동아시아 국제대전과 백제멸망관 재고찰." 『人文學論叢』 제3호, 2003. 고려의 후삼국 통일 시기의 대외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재석, "고려 전기 국제관계의 특질."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호, 2008;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 『한신인문학연구』 제1호, 2000을 참조할 것.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연구범위는 시기적으로 당나라가 건국된 618년부터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한 676년, 그리고 고려가 건국된 918년부터 후백제가 멸망한 936년까지로 한정하였다.

Ⅱ. 신라의 통일과정과 특징

1. 신라의 통일과정

(1) 1단계(551-643년) : 신라의 여·제 공세정책과 십자외교의 모색

이 시기는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에 대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을 꾀하는 반면, 신라는 여·제 연합에 맞서 당나라와 협력을 시도하는 일종의 '십자외교'의 모색기이다.[4]

신라는 백제의 한강 하류 지역을 점령(553년)하면서 고구려에 대항한 나·제 동맹을 깨뜨렸다. 1년 뒤 신라는 백제와 관산성(옥천) 전투(554년)를 벌이고 이어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629년)하면서 여·제에 대한 공세정책을 본격화 하였다. 신라의 여·제 공세정책은 나·제 동맹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한 백제로 하여금 신라에 대해 반발하게 만들었다. 특히 641년 즉위한 의자왕은 왕권강화를 위해 영토회복에 나서며 신라의 40여성을 빼앗는 등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백제의 위협과 영토탈취로 신라는 백제에 대항할 동맹국이 필요하였고 이에 642년 김춘추를 고구려에 파견해 원병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연개소문이 원병에 앞서 죽령 서북지방의 영토를 돌려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협상은 실패로 끝났다.

4) 정구복 외 역, 『삼국사기』,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pp. 158~163;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5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6, p. 87;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6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 (백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5, pp. 109~130; 김수태, 『백제의 전쟁』, 서울: 주류성, 2007, p. 193; 이병렬·조기호, "7세기 동아시아 국제대전과 백제멸망관 재고찰." 『人文學論叢』 제3호, 2003, p. 412.

www.kci.go.kr

고구려와 신라의 협상이 결렬된 후 고구려와 백제는 643년 당항성을 공격하는 등 신라에 대한 압박정책에 나섰다. 여·제 연합공격이 가능했던 이유는 백제의 발상지가 당항성 부근의 한강유역이었고, 고구려가 신라에게 반환을 요구한 죽령 서북지역이 남한강유역이었다는 점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여·제의 공격을 받은 신라는 당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였지만, 당시 당나라는 서역국가들의 정복 등 국경문제에 주력함에 따라 군사원조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2) 2단계(644-650년) : 신라의 친(親)당·왜국 정책과 십자외교의 시도

이 시기는 신라가 당나라와 합심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는 등 당나라와의 연합을 가시화하는 한편, 왜국과도 연합을 시도하면서 한편에서는 신라-당-왜국, 다른 한편에서는 고구려-백제가 위치하는 십자외교 시도기이다.[5] 십자외교의 배경에는 신라, 당, 그리고 왜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신라는 한반도에서의 고립을 피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연합이 필요하였다면, 당나라는 국경을 맞댄 고구려를 견제할 국가가 필요하였고, 왜국은 정권교체 이후 기존의 백제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다국(多國) 외교[6]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신라의 원병요청에 대해 644년 당 태종은 고구려에 조서를 보냈다. 그 내용은 '고구려와 백제는 군사를 거두어야 하며, 다시 신라를 공격할 경우 고구려를 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당나라가 신라의 입장에 섰음을 분명히 한 조서였다. 신라가 당의 원조를 요청했던 것은 625년이지만 644년에야 지원 의사를 표명한 이유는 당나라 사정 때문이었다. 당나라는 고창국(高昌國) 정복으로 서역 국경지대가 안정을 찾고, 중국 대륙에서 유일한 강대국이자 통일왕조로 자리매김하자 비로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생겼던 것이다. 이후 신라는 본격적인 친당 외교노선을 펼쳤다.[7]

5) 정구복 외 역, 위의 책, pp. 414~417; 연민수, "7世紀 東아시아 정세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제24호, 2004, p. 42; 김은숙,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수의 등장 이후 백제 멸망까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26호, 2007, p. 74.

6) 연민수, 위의 논문, p. 40.

이와 함께 신라는 왜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왜국과 백제의 빈번한 교류, 그리고 고구려의 친(親)왜국정책으로 고구려-백제-왜의 연합 형성의 움직임이 있자 신라는 7세기 중엽부터 왜국과의 관계모색에 들어갔던 것이다.[8] 그런 가운데 왜국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645년 친백제 노선을 추구하던 소가씨(蘇我氏)정권 대신 효덕(孝德)천황이 옹립되었고, 당나라와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면서 자국을 도와줄 파트너로 신라를 택하였다. 당시 고구려는 당나라의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고 백제는 당나라의 의사에 반하여 신라를 공격했기 때문에 왜국에게는 신라가 파트너로 적합했던 것이다. 646년 왜국이 신라에 관계개선을 제안하자 신라는 다음 해 김춘추를 전권대사로 왜국에 파견하였다. 왜국은 신라에게 왜국과 당나라 간 중개를 요청하였고, 신라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양국 관계가 강화되었다.

(3) 3단계(651-676년) : 십자외교의 확립과 신라의 통일

이 시기는 651년 당나라 조서를 계기로 고구려-백제-왜의 연합과 신라-당나라의 십자외교 관계가 확립되고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를 거두며 삼국통일을 이루는 시기이다.[9] 651년 당 조서를 계기로 당나라와 미온적인 관계 속에서 신라와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한 의자왕은 당나라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7) 648년 김춘추는 아들 법민(후의 문주왕)이 당 태종 옆에 머무르게 하는 숙위외교(宿衛外交)를 펼쳤으며, 당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청병외교(請兵外交), 당나라 의관 착용 및 연호 사용, 하정의례(賀正儀禮) 등이 그 예이다.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7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Ⅲ (신라·가야)』,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7, p. 155.

8) 예를 들면, 621년 사신을 파견하여 왜국과 당의 교섭 중개의사를 전달하고 그 후 왜국의 견당 학문승과 학생들을 당나라에 보내주거나 이들을 본국에 보내주었으며, 643년에는 삼국 중에서 최초로 황극천황(皇極天皇)의 즉위를 축하하고 서명천황(舒明天皇)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신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연민수, "7世紀 東아시아 정세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제24호, 2004, p. 45.

9)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6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 (백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5, pp. 108~160;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5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 (고구려)』,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6, p. 139; 양종국, 『백제멸망의 진실』, 서울: 주류성, 2004, p. 83; 연민수·이기동 외 공저, 『8세기 동아시아 역사상』,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p. 33; 이기동, "신라의 대당군사동맹과 삼국통일." 『한국사 시민강좌』 제36호, 2005, p. 23.

www.kci.go.kr

대신 왜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였다.[10] 655년 여·제 연합이 신라의 북계 30여 성을 점령하면서 한편에서는 고구려-백제-왜, 다른 한편에서는 신라-당의 십자외교 구도가 확립되었다.

신라를 두둔하는 당 조서 이후 659년 백제는 신라를 공격하였지만 신라가 당에 구원을 요청하면서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다(660). 그리고 연개소문의 죽음으로 인해 고구려 지도층이 분열된 틈을 타 나·당 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하였고, 고구려 역시 멸망하였다(668). 그 과정에서 당나라는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백제 멸망 후에는 문무왕에게 계림주대도독의 관직을 내리고 고구려 멸망 후에는 안동도호부를 두어 한반도를 당나라의 주(州)로 편입하려 한 것이다. 이에 신라는 결국 당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676년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삼국통일의 과업을 달성하였다.

2. 대외환경의 특징

신라가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대외환경은 크게 세 가지, 즉 당시 강대국이었던 당나라의 신라지원, 왜국 그리고 여·제의 정책 실패를 들 수 있다.

(1) 중국(당) : 한반도의 안정과 친당화

한반도가 삼국 병존의 시대를 겪는 동안 중국대륙에서는 수나라에 이어 당나라라는 통일왕조가 다시금 등장했다. 중국대륙의 강력한 통일왕조의 등장은 한반도 국가들에게 하나의 큰 위협이자 기회였고, 신라는 통일왕조인 당나라를 자국의 연합국이라는 기회로 삼아 고구려와 백제에 맞설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당나라는 왜 삼국 중에서 신라를 지원하고 또 다시 나·당 전쟁을 벌였는가? 이는 한 국가에 대한 지원과 전쟁이라는 양면의 성격을 갖지만 그 원인은 동일하다. 중국 대륙을 평정한 당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자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한반도의 안정이었다. 이를 위해 당나라는 고구려를 견제할 수 있는 국가로 친당정책을 펴던 신라를 지원했던 것이며,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평정하자 이번에는 국경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신라와 전쟁을 벌였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618년 중국 대륙을 통일한 당나라는 서역 국경지대의 안정화 후, 당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다른 나라인 고구려에 눈을 돌렸다. 고구려가 대당 온건정책을 취하기는 했지만 신라와 백제가 625년, 626년에 당나라에 '고구려가 길을 막고 당나라에 조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등 고구려의 태도에 안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643년 신라가 여·제의 신라 당항성 점령 시도로 구원을 요청하자, '신라를 공격하면 고구려를 치겠다'는 조서를 고구려에게 보냈고, 연개소문이 거절하자 이를 빌미로 645년에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더불어 당나라는 고구려 원정 시기에 신라의 7성을 습취하고 고구려와 연합한 백제 역시 불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달리 신라는 친당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었다. 더욱이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의 견제를 위해 고구려와 손을 잡은 백제보다는 여·제의 공격을 받은 신라의 편에 서는 것이 한반도의 힘의 불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당나라는 신라를 지원하였고, 신라는 나·당 연합군을 통해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2) 일본(왜국) : 다국(多國) 외교의 실패

소가씨 정권을 타도하고 집권한 효덕천황은 이전 정권이 추진했던 백제 중심의 일국(一國) 외교가 아니라 한반도의 세 나라와 당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多國) 외교로 전환하였다. 왜국은 당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당시 한강을 차지하고 있던 신라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당시 신라도 백제와 고구려의 공세 속에 한반도 외부세력인 왜국과의 교류증진은 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양국의 교류는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러나 왜국의 친(親)나·당 정책이 백제, 고구

10) 653년 백제본기에 "왜와 우호를 통하였다"라는 기사가 이를 방증한다. 정구복 외 역, 『삼국사기』,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p. 510.

www.kci.go.kr

려와의 관계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국은 신라의 중개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중에도 백제, 고구려와 사절단을 교환하며 관계를 유지해나가며 다국 외교를 추진하였다.[11]

그러나 왜국의 다국 외교는 오래가지 못했다. 당과 신라의 왜국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654년 신라가 여·제의 공격을 받을 때 당나라는 왜국에게 구원병을 요청했지만 왜국은 응하지 않았다.[12] 또한 신라와 당나라는 적국인 고구려, 백제와 통교를 지속하는 왜국을 믿을 수 없었다. 때문에 신라는 656년 이후 왜국으로 사신을 파견하지 않고 왜국의 견당사 요청을 거절하면서 왜국의 나·당과의 교류 시도는 좌절되었다.

왜국의 다국 외교는 기존의 긴밀한 백제와의 관계를 희석시켰다. 모든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느 하나의 국가와 연합관계를 형성할 수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왜국이 나·당의 원병 요청을 거부하였고 나·당은 하나의 연합국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신라는 왜국이 나·당 뿐만이 아니라 여·제 연합의 신라 공격에도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여·제·왜 연합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백제 멸망 후 왜국의 원병지원에도 전세를 뒤집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나·당 연합군의 대(對)여·제 전쟁에서 왜국이 참여했어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한반도(백제, 고구려) : 친당 외교의 실패

중국 대륙에서 강력한 통일국가인 당나라가 등장하자 고구려와 백제 모두 친당정책을 펼쳤다. 고구려는 집권초기에 국내안정을 위해 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백제는 당나라를 이용하여 고구려를 견제함과 동시에 당과 고구려의 다툼 속에 신라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양국 모두 당의 신뢰를 받지 못했고, 여·제의 친당외교 실패는 한반도에서 신라의 입지강화에

11) 연민수, "7世紀 東아시아 정세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제24호, 2004, p. 40.
12) 연민수, 위의 논문, p. 53.

힘을 실어주었다.

고구려는 당나라 건국 초기에는 대당 온건정책을 취했다. 수나라와의 전쟁에 따른 포로교환과 관계악화를 막기 위해 삼국 중에서 고구려가 제일 먼저 사신을 파견하였고,[13]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킨 뒤에는 대외 안정을 위해 대당 사신을 보내는 등 당나라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자제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당나라가 신라를 치면 고구려를 공격하겠다는 내용의 조서를 내리고(644년) 이를 실행에 옮기자, 고구려는 당나라와 적대적 관계로 돌아섰다.

당나라의 건국 이후 백제는 친당 외교를 추진하면서 당나라를 이용하여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무왕은 당나라에 '고구려가 길을 막고 당에 조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14], 의자왕도 매년 조공 사신을 보내는 등 친당 외교는 지속되었다. 그러나 당나라가 651년 백제에 '신라를 공격하면 백제를 치겠다'라는 조서를 보내자 백제는 친당정책을 포기하였다. 당나라를 통해 고구려를 견제하려면 우선 당나라가 백제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했다. 그러나 당의 조서는 기대와는 반대였고 고구려에도 조서를 보낸 후 공격한 전례가 있었던 것이다. 백제는 고구려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자, 고구려와 손을 잡고 신라의 북계 30여 성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하였다.

즉, 고구려는 대내정치 집중을 위해, 백제는 고구려 견제 및 신라 공격을 위해 당나라와 관계개선을 꾀하는 친당정책을 행하였다. 하지만 고구려는 당나라의 대고구려 공세정책, 백제는 당나라와 연합을 맺은 신라에 대한 적대 정책으로 인해 친당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다. 양국은 당나라의 한반도정책을 자신들에 유리하게 바꾸는데 실패하였고, 그 실패는 나·당 연합을 가져오며 멸망하였다.

13)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7 삼국의 정치와 사회 III (신라·가야)』,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7, p. 130.
14) 정구복 외 역, 『삼국사기』,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p. 503.

www.kci.go.kr

Ⅲ. 고려의 통일과정과 특징

1. 고려의 통일과정

(1) 1단계(918-925) : 화친관계의 탐색과 고려의 친(親)신라 정책

이 시기는 고려가 후백제, 신라와 화친관계를 모색하는 시기이다.[15] 고려는 후백제와는 전쟁을 치루면서도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후백제의 공격을 받은 신라에 대해서도 친(親)신라 정책을 펼쳤다. 고려는 왕건의 즉위 초 동북방의 여진족 문제로 한반도의 안정된 환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후백제, 신라와의 화친을 도모하였다. 먼저 고려 건국 초기에 후백제와 상호 온건정책을 펼쳤다.[16] 그러나 후백제의 신라 침공에 대해 고려가 원병을 파견하자, 후백제는 924년 7월에 고려의 조물군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다음 달인 8월 후백제는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 아직까지는 고려에 적대정책으로 돌아서지 않았고, 고려 역시 후백제의 선물을 받아들이면서 관계악화를 막았다.

한편 고려와 신라의 화친관계는 고려 건국 2년 후인 920년 신라가 고려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그 해 10월 후백제가 대야성을 공격하자 신라는 고려에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이 요청을 받아들인 고려는 신라에 원군을 파견하여 후백제의 견훤을 퇴각시켰다. 고려는 신라와 백제 간 전쟁에서 신라를 지원함으로써 친신라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러한 고려의 친신라 정책은 신라의 '정통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신라는 676년 나·당 전쟁 승리 후 삼국통일을 이룬 이래 약 200년 동안 통일된 한반도를 유지해 온 나라였다. 후백제와 후고구려(후에 고려)의 건국은 신라에 대한 반란세력이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정통성은 신라에 있었다.[17] 왕건이 일부 제도를 신라 방식으로 되돌리면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통성을 가진 신라에 대적하는 국가 이미지를 가지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반도에서 고려는 신라와 후백제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반란세력이 국가를 세울 정도로 힘이 약해진 신라와 달리 후백제는 신라의 영토를 습취하며 영토를 넓혀나갔다. 그 가운데서 고려가 상대적으로 약한 신라를 도와줌으로써 한반도는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이러한 한반도의 힘의 균형은 고려가 북방 민족 및 대내적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대외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

(2) 2단계(926-936) : 신라·고려의 화친관계 확립과 고려의 통일

이 시기에 고려는 볼모 사망사건으로 후백제와 대립하는 한편 신라와는 화친관계를 확립하였다.[18] 당시 후백제와 신라는 모두 내부문제를 안고 있었다. 신라는 잦은 농민반란 및 왕권 약화로 나라를 유지할 능력이 없었고, 후백제는 왕위 계승 다툼으로 견훤이 고려에 투항하는 등 내부분열이 일어났던 것이다. 고려와 화친관계였던 신라는 나라를 고려에 귀부하고, 고려와 대립했던 후백제는 여·제 전쟁을 통해 멸망하며 고려는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

화친과 적대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던 고려와 후백제가 적대관계로 돌아서게 된 계기는 고려에 볼모로 간 견훤의 사위 진호의 사망 사건이었다. 925년 10월에 고려와 후백제는 조물성에서 강화에 나서며 견훤은 사위 진호, 왕건은 사촌동생 왕신을 인질로 서로 교환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인 926년, 진호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고려가 진호를 살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견훤은 왕신을 죽인 뒤

15) 정구복 외 역, 위의 책, pp. 297~844; 민족문화추진회 역, 『고려사절요』, 서울: 신서원, 2004, p. 45; 고전 연구실 역, 『고려사』, 서울: 신서원, 2001-2002, p. 101;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울: 서경문화사, 2010, p. 17.

16) 후백제는 사신을 파견하여 태조의 즉위를 축하해주었고, 공작선과 지리산죽전을 선물하였다. 정구복 외 역, 위의 책, p. 833.

17) 신라에 공세적 태도를 보인 후백제의 견훤조차도 왕건에게 보낸 편지에서 '(신라) 왕실을 높이고 마음속 깊이 큰 나라를 섬기고 있다'라고 표현하였다. 정구복 외 역, 위의 책, pp. 834~835.

18) 정구복 외 역, 『삼국사기』,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pp. 304~305; 민족문화추진회 역, 『고려사절요』, 서울: 신서원, 2004, pp. 50~55; 고전 연구실 역, 『고려사』, 서울: 신서원, 2001-2002, pp. 101~135.

www.kci.go.kr

왕건에게 선물(靑馬)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이는 외교관계 단절의 공식적인 통보인 셈이었다. 이로써 고려와 후백제의 우호정책은 끝나고 양국은 정면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대립각을 세운 고려와 후백제의 관계와는 달리, 927년에 고려가 후백제의 용주를 공격할 때 신라가 군사 원조를 하면서 고려와 신라는 화친관계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신라의 태도에 불만을 가진 후백제가 같은 해 9월에 신라의 고울부를 습격하자 신라의 요청을 받은 고려는 군사 1만을 보내 지원해 주었다. 후백제가 신라를 습격할 때마다 고려의 구원병에 당해야만 했던 견훤은 927년 11월에는 신라의 도성을 침공하여 신라의 경애왕을 자결하게 한 후, 경순왕을 즉위 시켰다. 이 소식을 듣고 고려가 출병하여 후백제와 공산전투를 벌였지만 대패하고 말았다.

고려와의 전쟁에서 후백제는 승기를 잡았으나 935년 3월에 견훤의 후계자 결정에 불만을 품은 신검의 정변이 일어나는 내분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 견훤은 금산사에 유폐되었지만 탈출하여 고려에 입조를 청했고, 왕건은 이를 받아들였다. 고려와 가장 많은 전쟁을 벌였던 후백제의 견훤을 받아들이는 왕건의 모습을 본 신라의 경순왕은 935년 10월 고려에 귀부 의사를 밝혔고, 왕건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신라는 고려에 통합되었다. 견훤이 고려로 귀화하면서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갖지 못한 신검의 후백제는 936년 고려와의 일리천 전투에서 패하며 멸망하였다.

2. 대외환경의 특징

(1) 중국(5대 10국): 패권국가의 부재와 등거리 외교

고려의 통일 전후 시기 중국 대륙에는 여러 국가들이 병존하되 패권적 지위를 가진 국가는 없었다. 당시 중국은 5대 10국 시기로 열국이 함께 있는 일종의 세력균형 체제에서 각 국가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고 있었다.[19] 이러한 시기에

19) 이재석, "고려 전기 국제관계의 특질."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호, 2008, pp. 106~107.

한반도 국가들과 통교하였던 오월과 후당은 당시 한반도에서 각축을 벌였던 고려, 후백제와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였으며, 거란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고려와 상호 온건정책을 취하였다. 이러한 5대 10국의 등거리 외교와 거란의 온건정책은 한반도에서 고려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반면, 후백제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오월과 후당이 후백제, 고려와 모두 친선외교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종주국으로서의 지위확립 시도이다. 당시 강력한 통일왕조, 즉 패권국가가 부재했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서로 종주국이 되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책봉을 받는 나라들이 필요했다. 오월과 후당은 후백제와 고려에게 관직을 수여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종주국의 이미지를 강화하려 하였던 것이다.[20] 후당은 925년에 견훤에게 '후백제왕'의 관직을 제수하였고[21] 932년에 고려를 책봉하였다.[22]

둘째, 한반도와 지리적 근접성이 적기 때문이다. 오월과 후당은 중원에 자리하고 있어서 한반도 국가들과 국경을 마주하지 않았으며,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란 등을 견제해야 했기 때문에 한반도 분쟁 시 군사적 개입의 여유가 없었다. 오월이 후백제와 고려의 공산전투에도 화해를 요구하는 서신을 각각 전달한 것도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고려와 지리적으로 인접했던 거란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거란은 국경을 마주한 발해를 견제하고자했고, 후백제와 전쟁 중이었던 고려는 북방을 안정시키기 위해 925년 거란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 거란과 고려 사이에 있는 발해가 일종의 완충지 역할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926년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면서 거란과 고려는 국경을 맞닿게 되었다. 접경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당시 거란은 중원의 후진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신경을 두지 않았고 고려는 한반도 통일에 집중 할 수 있었다.

5대 10국 및 거란이 한반도 개입을 최소화한 정책은 고려·신라에 대한 공세정

20) 김동정, "五代十國의 韓半島 諸國과의 관계와 그 인식." 『中央史論』 第12·13合輯, 1999, p. 222.
21) 정구복 외 역, 『삼국사기』,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p. 834.
22)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 15 고려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5, p. 277.

www.kci.go.kr

책으로 외부의 원조가 필요했던 후백제에게 그들의 군사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써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대 한반도 온건정책을 추구하며 신라라는 우방을 얻은 고려에게는 통일과정에서 외부세력의 개입 최소화라는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하였다.

(2) 한반도(후백제, 신라): 후백제의 오판과 신라의 무능력

신라·고려의 화친관계가 지속되자, 후백제는 중국의 국가들과의 결속으로 한반도에서의 고립을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당시 중국 대륙은 열국(列國)이 서로를 견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신라는 고려에 군사요청을 할 만큼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다. 이러한 백제의 오판과 신라의 무능력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후백제의 통일 시나리오는 '선(先) 신라, 후(後)고려 복속'이었다.[23]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후백제는 신라를 공격하기 전에 고려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자국이 신라를 공격할 때 고려가 후방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온건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는 후백제의 첫 번째 오판이었다. 고려는 신라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며 신라와 연합관계로 나아간 것이다. 고려의 신라 지원으로 공격이 원활하지 못하고 적극적 주전파인 신검계가 우세해지자[24] 후백제는 고려와의 화친 대신 공세 및 적대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한반도에서 고립에 처한 후백제는 오월과 후당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고려와 신라를 견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당시 중원의 국가들은 다른 왕조들을 견제해야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또한 고려 역시 중원의 국가들에게 사신을 파견하고 책봉을 받는 등 대외활동에 적극성을 띄었기 때문에 그들이 후백제의 일방적 편을 들 수 없게 하였다. 중원의 도움으로 위기 극복을 해보려는 후백제의 두 번째 오판인 것이었다.

23) 견훤은 나라를 빼앗을 마음을 가졌는데 태조가 먼저 취할까 걱정하였다. 정구복 외 역, 『삼국사기』,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p. 835.
24) 전기웅, "신호철 저 《후백제 견훤정권연구》." 『역사와 경계』 제24호, 1993, p. 164.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견훤의 첫째 아들이었던 신검이 왕위 계승에서 탈락하자 불만을 품고 아버지 견훤을 유폐시키면서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주전파였던 신검이 왕위에 오르면서 고려에게 적대정책을 지속한 후백제는 결국 전쟁에 패하면서 멸망하였다. 후백제의 오판과 내부분열은 고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다.

한편, 신라는 후백제의 신라 적대 정책과 고려의 친신라 정책에 따라 후백제에 대한 반감과 고려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되었다.[25] 더욱이 후백제가 신라의 도성을 습격하여 왕을 살해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면서 후백제에 대한 신라인들의 반감은 더욱 커졌다. 반대로 고려는 태조 925년에 신라 장군의 귀순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냄으로써 신라를 흡수하려 한다는 오해를 피했고, 신라의 도성이 습격당할 때 왕건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후백제와 전투를 벌임으로써 신라인들에게 신뢰를 얻었다.[26] 신라는 진성여왕 즉위 이후 농민 반란이 지속되고 명분상 왕조를 유지해 가는[27] 상황 속에서 견훤이 고려에 입조하자, 935년 10월에 경순왕은 항복문서를 고려 태조에게 보내고 이를 왕건이 받아들이면서 신라는 고려에 통합되었다.

Ⅳ. 역사적 교훈과 현대적 함의

1. 통일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삼국시대와 후삼국시대의 통일요인을 비교하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통일에 성공한 신라와 고려는 당시 국제질서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주변 국가들과 친선관계를 맺었다면, 통일에 실패한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25) 그 예로 925년 고려와 후백제의 강화 소식을 들은 신라의 경애왕은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여 "견훤은 이랬다저랬다 하고 거짓이 많으니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됩니다"라며 후백제와의 화친을 반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정구복 외 역, 『삼국사기』,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p. 300.
26)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 『한신인문학연구』 제1호, 2000, p. 44.
27) 신호철, "신라의 멸망원인." 『韓國古代史硏究』 제50호, 2008, p. 161.

www.kci.go.kr

후백제와 신라는 국제질서에 부응하지 못하고 주변 국가들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수행하며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

< 표 1 > 삼국시대와 후삼국시대 통일요인 비교

		동북아 질서	대외정책 요인	정책의 성격
성공	신라	단극	친 중국 중시 외교 정책	친선 정책
	고려	다극	한반도 중시 외교 정책	
실패	백제/고구려	단극	한반도 중시 외교 정책	이중 정책
	후백제/신라	다극	친 중국 중시 외교 정책	

(1) 대외정책 요인 : 국제체제에 상응하는 정책

삼국시대와 후삼국시대 동북아 질서는 통일과정에서 대외적 환경요인으로 작용한 공통점이 있다. 삼국시대는 단극체제였다면 후삼국시대는 다극체제의 동북아 국제체제가 형성되는 등 질서의 성격은 상이하였다. 따라서 삼국시대는 통일과정에 패권국가인 당나라와의 관계 설정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후삼국시대에는 한반도 외의 국가들 보다는 한반도 내의 국가들과의 관계가 중요변수였다.

< 그림 1 > 7세기 중기 대외관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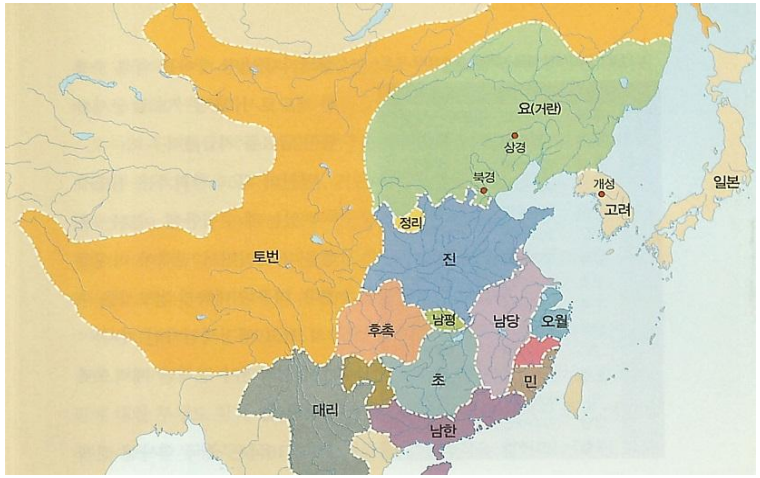
출처 : 양종국, 『백제 멸망의 진실』, 서울: 주류성, 2004, p. 61

먼저 삼국시대의 대외환경을 보면(<그림 1> 참조), 중국 대륙을 통일하면서 유일 패권국가로 자리매김한 당나라가 접경지역인 한반도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었으며, 왜국은 정권변화로 국내 문제에 주력하는 한편 당나라 및 한반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 한반도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양국 모두 삼국에 집중하고 있던 시기에 신라 대 여·제로 대립하고 있던 삼국은 자국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나라와 왜국과의 관계 설정이 한반도에서 권력을 차지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었다. 특히 팽창정책을 통해 서역국가들을 복속한 당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삼국 중 누가 우위를 점하는가는 동북아의 패권국가인 당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차단, 혹은 활용할 수 있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하지만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의 공세에만 초점을 맞추고 당의 영향력을 간과하였다. 신라를 침범하지 말라는 당의 경고에도 신라에 대한 연합 공격을 실행하였고 나아가 친당정책도 중단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당나라에 대항하는 고구려와 백제의 행동은 당나라 중심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던 당나라의 의도와 상이하였다. 또한, 여·제 연합의 신라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당나라가 바라던 한반도 안정에 위배되는 한편, 자국 침범의 가능성이 더해져 당나라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당나라는 당 중심의 국제질서 확립과 국경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이다. 반면, 신라는 한반도에서의 고립위기를 국제적 공조를 통해 벗어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정책의 중심을 친당정책에 놓고 당과의 유화적 관계를 중시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의 친당정책의 중단은 일관되게 친당정책을 유지하는 신라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이로 인해 신라는 당나라와 군사연합을 맺고 고립 위기를 벗어나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즉, 한반도에서 삼국 중 신라만이 당나라가 중시하는 안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신뢰는 통일과정에서 신라의 대외환경을 유리하게 만드는데 기반이 되었다.

www.kci.go.kr

< 그림 2 > 후삼국시대 중국의 권력지형



출처 : 정해은, 『고려, 북진을 꿈꾸다』,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9, p. 17

한편, 후삼국시대의 동북아 질서는 이전과 완전히 상이하였다(<그림 2> 참조). 중원에는 5대 10국이 난립하고 북쪽에 거란이 위치한 다극체제로, 중원의 국가들과 거란은 서로를 견제하느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여력이 적었다. 또한 당시 왜국은 당나라 쇠퇴 이후 견당사를 중지하면서 대륙과 관계가 단절되고 일본 내부에 집중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반도 국가들은 이들과 온건관계를 유지하는 한, 대외환경요인은 후삼국간의 패권추구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었다. 실제 후삼국은 모두 친중국 정책을 펴고 있었고 이들의 차이를 가져온 것은 서로 다른 한반도 정책이었다.

후백제는 고려, 신라에 대해 공세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후백제의 공세정책은 한반도 내에서 자국의 고립을 촉진하였고, 후백제는 삼국시대의 신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국제적 공조를 통해 고립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하지만 중원의 국가들은 굳이 후백제와 국제공조를 이룰 이유가 적었다. 고려와 신라도 친중국 정책을 표방하고 있었고 더구나 이들 국가는 중원 국가들에게 위협 요소가 아니

었던 것이다. 한반도 국가들에게 공세정책을 펼친 후백제와 달리, 고려는 후백제와 신라에게 온건정책과 친선정책을 펼쳤다. 비록 후백제에 대한 온건정책은 견훤이 고려에 공격을 가하면서 그 기간은 짧았지만, 이러한 온건정책으로 후백제의 견훤이 고려에 입조를 청할 정도로 신뢰감이 있었다. 또한 군사적 지원 등을 통해 축적된 신라와의 친선관계는 신라가 고려에 귀부를 청하면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시대착오적 외교를 펼친 후백제, 그리고 고려와의 친선정책에 치중했던 신라는 고려 통일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즉, 후삼국시대에 대외환경은 외부세력의 한반도 개입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통일과정에 동북아 외교 보다는 한반도 외교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2) 정책의 성격 : 친선정책의 유지

전쟁이 빈번했던 삼국시대와 후삼국시대의 통일과정에서 외교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통일을 이룬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외교정책이 상이한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졌다는 점이다.

먼저 통일에 성공한 나라인 신라와 고려의 정책은 친선정책을 유지하는 성격을 띠었다. 이때의 친선은 단순한 교류, 협력의 측면이 아닌 군사적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거나, 깊은 수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신라는 당시 패권국가인 당나라의 건국 이후 꾸준히 친당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 대신 신라의 편을 든 조서를 보내거나 군사연합을 통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등 신라의 친당정책은 성과를 거두었다. 군사연합이 가능했던 이유는, 두 국가 모두 고구려 멸망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구려 멸망하자 더 이상 같은 목적을 가지지 않은 당나라는 통일된 삼국을 모두 편입하려 했고, 이는 나·당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고려 역시 중원과 한반도에서 친선정책을 유지하였다. 중원의 나라들과 후백

www.kci.go.kr

제에는 온건정책을 펼쳤다면, 신라와는 더 나아가 군사원조를 하는 등 적극적인 친선정책을 지속해 나갔던 것이다. 중원과의 온건정책은 한반도에 그들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고, 후백제에 대한 온건 정책은 견훤의 고려 입조로 후백제의 분열을 가속화시켜 고려가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요인이 되었다. 또한 신라에 대한 친선정책은 신라의 신뢰를 얻으며 고려에 나라를 귀부하게 만듦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일관된 친선정책은 관련국가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고 통일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통일과정에서 도태한 나라들은 이중정책을 실시하였다. 삼국시대의 고구려는 백제와 연합을 맺고 신라를 공격하지만 백제가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구원에 나서지 않았다. 고구려는 백제와의 연합을 신라 공격에 한정하였고, 연개소문의 집권 말기에는 대외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백제를 원조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간헐적인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은 지속적인 친당정책으로 군사연합을 이끌어낸 신라와 당나라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편 백제는 당나라가 고구려 원정에 나서자, 당나라에게 원병을 약속했지만 신라가 당나라를 원조한 틈을 타서 신라의 7개성을 습취하는 등 한반도에서 패권의 야심을 드러냈다. 이러한 백제의 태도는 당나라의 불신을 조성하고 당나라가 신라의 편을 들게 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후삼국시대의 신라는 고려와 후백제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정책을 펼쳤다. 신라는 친선을 표방하는 고려에게는 군사원조를 주고받는 등 역시 친선정책을 추구한 반면, 고려에게 '후백제를 믿지 말라'고 하며 후백제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신라의 親고려, 反후백제의 이중정책은 후백제가 신라의 도성을 침공하는 결과를 낳았다. 비록 신라가 후백제에 흡수되지는 않았지만 후백제의 경주 침공은 신라가 자국의 도성조차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나라를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낀 신라의 지도부는 후백제의 견훤이 고려에 입조한 것을 계기로 자국에게 우호적인 고려에 나라를 귀부하였다.

후백제는 건국초기에 신라와 고려 각각에게 이중정책을 실시하였다. 후백제는 신라에 군사적 공세를 이어갔지만 중원과 왜국에 보내는 사신에는 '신라의 신하'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28] 이는 한반도에서 정통성을 가진 나라는 신라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신라를 받들어야 했지만, 국력이 강한 고려보다 신라를 침공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한반도 내부적으로는 신라에 공세정책을 펼친 것이다. 후백제의 공세에 시달리던 신라는 고려와 친선정책을 선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후백제는 한반도에서 고립 상황에 처하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후백제는 고려에게도 이중정책을 보였다. 고려의 건국 당시에는 선물을 보내며 유화적 태도를 보이다가 후백제의 신라 공격에 고려가 원조를 하자 고려와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다시 고려에 대하여 유화적 태도를 취하는 등 후백제는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보였다. 이러한 이중 정책은 신라와 고려의 친선관계에 일조하였고 후백제는 이들 국가에 맞설 수밖에 없었다.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중정책은 단극체제와 다극체제 모두 효과적인 외교정책이 되지 못했다. 이중정책은 불신감을 초래하며 상대국가의 외교방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게 온건정책을 펼치기란 어려운 것이다.

2.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함의

신라와 고려의 통일 요인은 친선정책 유지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국제체제의 성격에 따라 친선정책의 중요대상이 달랐다. 단극체제였던 삼국시대에 신라는 유일한 패권국가인 당나라와의 친선관계 유지에 강점을 두었다면, 다극체제였던 후삼국시대에 고려는 한반도 국가들과의 친선관계에 역점을 둔 것이다. 그렇다면 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질서의 특징은 어떠하며 두 사례 중

28) 신호철, 『후삼국사』, 청주: 개신, 2008, pp. 139~140.

www.kci.go.kr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한국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에게 어떤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가?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유일 패권체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중국의 부상에 따라 새로운 양상을 맞고 있다. 중국이 경제력 상승과 함께 세계 군사비 2위를 차지하는[29] 등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상호간의 경제 의존이 심화되는 등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면서도[30] 팽창이 두려워 견제하는 등 서로를 바라보는 구조적 틀은 대립적이다.[31] 즉, 미국이라는 일극체제에서 중국이 부상하며 경제에서는 상호의존, 안보에서는 상호견제라는 이중적 형태의 미·중 양극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에서는 미-일, 중-러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더불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며 중국과 '협력의 신단계'로 양국 관계를 심화시켰고,[32]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 등 미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동북아에서는 일국(一國)이 모든 힘을 향유하는 단극체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과거와 비교해 보면, 유일 패권국가가 동북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일 패권국가인 당나라가 존재했던 삼국시대와 다르며, 동북아에 강력한 미·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5대 10국의 다극체제였던 후삼국시대와도 다르다. 하지만 유일 패권국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들이 이익을 위해 상호 대립한다는 점에서는 후삼국시대의 국제체제와 유사하다. 다극체제 하에서 통일을 이룩한 고려는 중원, 거란과 상호 온건정책을 취하며 대 한반도 외교에 집중하였다. 고려는 중원, 거란과의 마찰을 피하는 방법으로 대외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이다. 다극체제인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고려가 중원의 국가들이

29) 유호근, "동북아 국제정치질서 변화와 동태성: 함의와 전망." 『정치정보연구』 제17권 1호, 2014, pp. 5~6.
30) 이수훈·박병인,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인식." 『한국동북아논총』 제58호, 2011, p. 71.
31) 유호근, "동북아 국제정치질서 변화와 동태성: 함의와 전망." 『정치정보연구』 제17권 1호, 2014, p. 9.
32) 박병인, "협력의 신단계로 진입하는 러중관계: 파장과 대응." 『한반도 포커스』 제28호, 2014, pp. 9~11.

나 거란에게 공세적인, 즉 북진정책을 펼쳤다면 중원과 거란에게 위협이 되어 그들의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거란과의 관계를 보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면서 고려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대두되며 얼마든지 관계가 악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직 삼국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려는 거란을 자극하지 않는 길을 택했다. 이렇듯 고려는 대외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 한반도 외교에 보다 집중하였던 것이다.

한국 역시 동북아 국가들과 마찰을 제거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대외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평화구축 동맹'의 성격을 강화시켜 미국과의 동맹을 세계적 차원으로 격상하여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위협 인식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와는 남북한과의 다자 경제협력 등 경협의 방식 및 수준을 높여야 한다. 또한 역사·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한반도의 통일이 정치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시키는 한편, 경제적으로 동북아의 역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점을 설득의 논리로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보다 적극화해야 한다. 후삼국 시대 고려는 대 한반도 정책을 '친선관계 유지'에 두고 후백제와 신라에게 친선정책을 펼쳤다. 고려의 꾸준한 친선정책은 두 국가의 지도부가 입조를 청하고 나라를 귀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한국도 북한에게 일관된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하지만 5년마다 정부가 교체됨에 따라 한국의 대북정책은 부침을 거듭하여 왔다. 각 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온 것이다. 그러나 한 정책이 진행된 5년은 평가를 내리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920년부터 시작한 고려의 신라에 대한 친선관계 유지 정책이 935년 신라가 고려에 나라를 귀부하기까지 15년이나 걸린 점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전 정부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5년 단임이 초래하는 정책변화의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www.kci.go.kr

한국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상호신뢰'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정책변화는 북한의 대남 불신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어냈다. 이제 한국정부는 처음부터 신뢰의 탑을 다시 쌓아야 하며, 그 예로 5.24 조치 이후 단절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라는 표현은 그 문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대화뿐만 아니라 이전의 포용 및 교류정책으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과 북한 모두 문 안에만 서 있다. 적극적인 '선 신뢰'는 통일의 주도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단초이다. 고려의 예를 들면, 고려는 신라에게 군사지원을 해주면서 적극적으로 친선관계를 이끌어나갔고, 친선관계를 주도해나가면서 통일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통일의 주도권을 가지고 싶다면 문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문 밖으로 나와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고려가 신라에게 보였던 것처럼 북한에게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지를 보이며 실천하는 것이 현재 동북아 상황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신라와 고려의 통일요인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의 정책 방향을 도출해 보았다. 신라와 고려의 통일을 가능하게 한 공통점은 대외적으로 국제체제에 상응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친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에서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다극체제였던 고려의 통일 성공요인에 보다 주목하여 한국은 주변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대 한반도 외교, 즉 대북관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고려의 대 한반도 친선정책의 지속성은 후백제와 신라의 신뢰를 이끌어

낸 것에 착안하여, 한국의 대북정책 역시 남북한 교류협력의 강화에 역점을 두어 북한의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며 우리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구체화, 정책화하지 못한다면 한반도에서 세 번째 통일은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서울프로세스는 남북관계의 신뢰와 동북아의 신뢰, 즉 통일에 대한 동북아의 지지가 선순환 작용을 하도록[33] 의도된 정책이다. 국가별 맞춤 정책에 따라 동북아 국가들에 대해 통일외교를 적극적으로 벌이는 한편, 북한에 대해 '선 신뢰'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교류를 이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 간 상호신뢰,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국가들 간 상호신뢰를 쌓을 때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는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통일의 과정은 조금 더 용이하게 다가설 것이다.

33) 통일부,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4, pp. 24~25.

www.kci.go.kr

참고문헌

고전 연구실 역, 『고려사』, 서울: 신서원, 2001~2002.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사5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고구려)』,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6.

————————, 『한국사6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Ⅱ(백제)』,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5.

————————, 『한국사7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Ⅲ(신라·가야)』,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1997.

————————, 『한국사15 고려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5.

김갑동, "고려의 후삼국 통일." 『한신인문학연구』 제1호, 2000.

———,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후백제』, 서울: 서경문화사, 2010.

김동정, "五代十國의 韓半島 諸國과의 관계와 그 인식." 『中央史論』 第12·13合輯, 1999.

김수태, 『백제의 전쟁』, 서울: 주류성, 2007.

김용옥, "예멘과 독일의 통일사례 비교와 시사점: 통합 합의과정 및 통일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8집 1호, 2006.

김은숙, "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수의 등장 이후 백제 멸망까지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제26호, 2007.

민족문화추진회 역, 『고려사절요』, 서울: 신서원, 2004.

박병인, "협력의 신단계로 진입하는 러중관계: 파장과 대응." 『한반도 포커스』 제28호, 2014.

박창권, "미중의 지역내 패권경쟁 가능성과 우리의 전략적 선택방향." 『전략연구』 제57호, 2013.

배정호 외,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전략』, KINU 연구총서 12-11, 서울: 통일연구원, 2012.

신호철, 『후삼국사』, 청주: 개신, 2008.

———, "신라의 멸망원인." 『韓國古代史硏究』 제50호, 2008.

양종국, 『백제 멸망의 진실』, 서울: 주류성, 2004.

———, "백제의 멸망과 신라의 삼국통일—역사적 평가에 대한 재조명—." 『역사와 역사교육』 제10호, 2005.

연민수, "7世紀 東아시아 정세와 倭國의 對韓政策." 『新羅文化』 제24호, 2004.

연민수·이기동 외 공저, 『8세기 동아시아 역사상』,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유호근, "동북아 국제정치질서 변화와 동태성: 함의와 전망." 『정치정보연구』 제17권 1호, 2014.

이광수, "新羅의 三國統一 決定要因과 南北韓 平和統一 展望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이기동, "신라의 대당군사동맹과 삼국통일." 『한국사 시민강좌』 제36호, 2005.

이수훈·박병인,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와 북한의 인식." 『한국동북아논총』 제58호, 2011.

이병렬·조기호, "7세기 동아시아 국제대전과 백제멸망관 재고찰." 『人文學論叢』 제3호, 2003.

이현표, "한반도의 통일환경 조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정구복 외 역, 『삼국사기』,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전기웅, "신호철 저 《후백제 견훤정권연구》." 『역사와 경계』 제24호, 1993.

정해은, 『고려, 북진을 꿈꾸다』,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9.

통일부,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4.

www.kci.go.kr

ABSTRACT

Determinants for the Unification of Silla and Goryeo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Focusing on the External Environment

Jung, Sung-Im(Korea Military Academy)·Kim, Se-ra(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rive policy directions in fostering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comparative method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unification and the external environment in the Three Kingdom period and the post-Three Kingdom period. One of the key factors which made Silla and Goryeo achieve unification is to pursue the Good Neighbor policy as well as build a favorable environment. The main parts of the Good Neighbor policy differ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Silla practiced the Good Neighbor policy towards the Tang Dynasty under the Tang Dynasty-centered unipolar system. This policy made Silla promote the military alliance with the Tang Dynasty and it led Silla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In contrast, under a multipolar system, Goryeo reunified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practicing the Good Neighbor policy toward countries within the Korean Peninsula.

Recently, mutual cooperation and conflicts are coexisting in Northeast Asia, changing from the US-centered unipolar world order to a multipolar order.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 needs to create an amicable international environment through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and Russia, while simultaneously maintaining the Korea-US alliance. And the Korean government especially has to practice a 'trust-first' policy for making significant progress on South-North Korean relations.

Keywords : external environment, multipolar system, unipolar system, good neighbor policy, double policy

투고일 : 2014년 10월 30일, 심사일 : 2014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2월 3일

www.kci.go.kr